



2026. 6. 9 (화)

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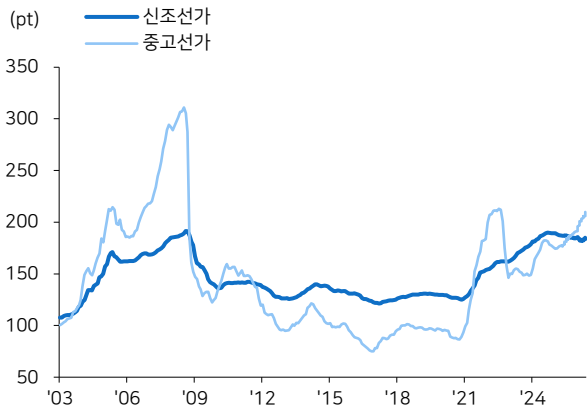
kiyeon.bae@meritz.co.kr

RA 김현비

hyunbee.kim@meritz.co.kr

## »»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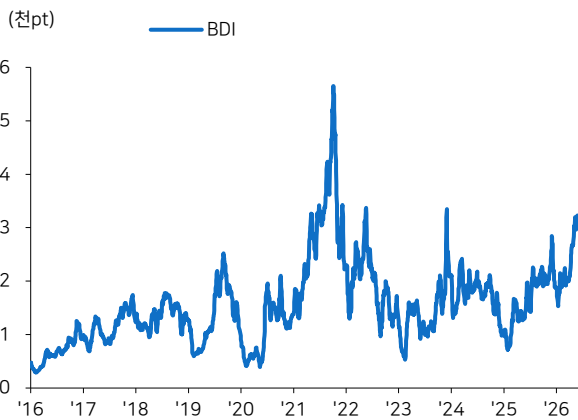
**신조선가** 185.0p (-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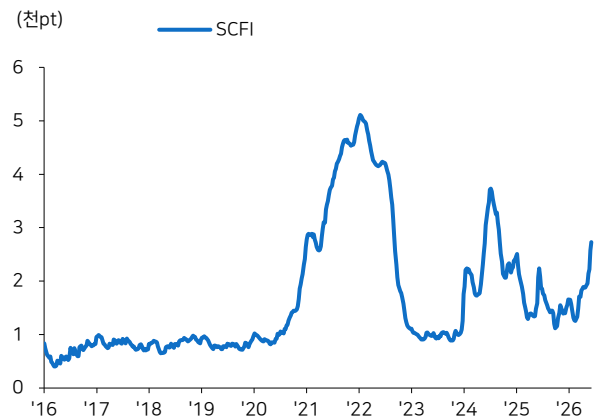
**중국 내수 후판가격** 523.0달러 (-2.0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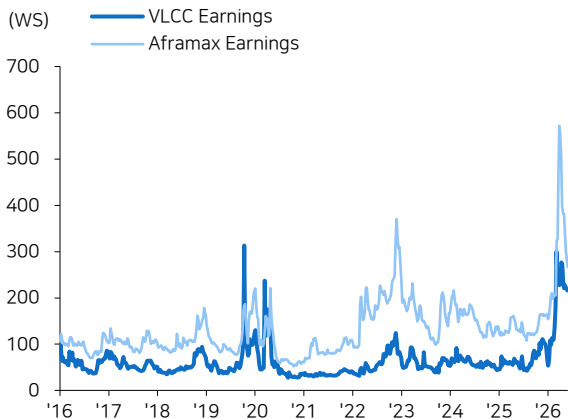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2,981.0p (-5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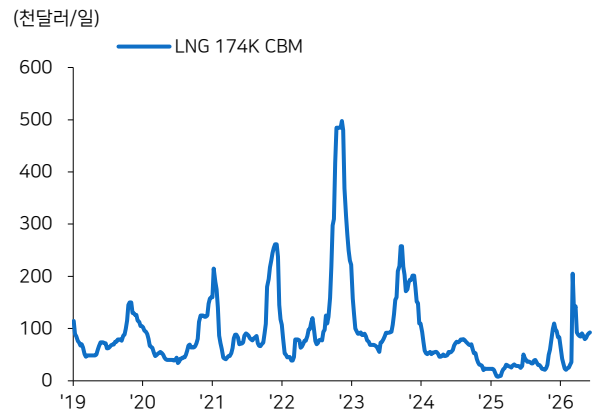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2,726.5(+154.8 WoW)



**VLCC Spot Rate** 216.2WS (-2.3p WoW)



**LNG Spot 운임** 92.8천달러 (+1.8p WoW)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삼성중공업, 3조 6천억원 '부유식 LNG 생산설비' 본계약 (연합뉴스)** <https://zrr.kr/VKibUX>

삼성중공업이 아프리카 지역 선주와 3조 6,536억 원 규모의 FLNG 건조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는 사전에 예비 작업 계약을 맺고 공정을 진행해 온 설비로 현재 상부 모듈 제작이 진행 중이며, 시운전 등을 거쳐 2028년 인도될 예정이라고 전해짐. 회사 측은 설계부터 시운전까지 전 과정의 표준화를 세계 최초로 실현해 초격차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며,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누적 수주액 96억 달러를 기록하며 연간 수주 목표의 61%를 달성해 작년 한 해 실적을 크게 상회했다고 알려짐.

**Purus Marine linked to LNG carrier order at Samsung Heavy Industries (TradeWinds)** <https://zrr.kr/nRaCsg>

Purus Marine이 삼성중공업에 3,855억 원(약 2억 5,200만 달러) 규모의 LNG 운반선 1척을 추가 발주한 배후로 지목되었으며, 해당 선박은 오는 2029년 1월까지 인도될 예정이라고 알려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Purus Marine이 삼성중공업에 발주한 네 번째 LNG 운반선이며, 동사는 HD현대삼호에 발주한 LNG선 한 척을 일본 Jera에 장기 용선하고 중국 조선소에도 LNG 벙커링선을 발주하는 등 가스 선대를 확장하고 있다고 전해짐. 삼성중공업은 이번 수주를 포함해 올해 총 29척, 누적 85억 달러의 수주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Canadian LNG project moves forward with pending European deal (Upstream)** <https://zrr.kr/a0Ki1F>

독일의 글로벌 에너지 기업 Uniper가 캐나다 서부 해안의 LNG 수출 프로젝트인 Ksi Lisims LNG와 연간 200만 톤 규모의 LNG 구매를 위한 의향서(LOI)를 체결했다고 보도됨. 이번 협약으로 아시아 시장 중심이던 캐나다 LNG 수출에 대한 유럽의 높은 관심이 확인됐으며, 양사는 장기 공급 및 구매 계약(SPA) 체결을 위해 논의를 전진시키고 있다고 전해짐. Ksi Lisims LNG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북서부의 부유식 터미널에서 가스를 액화·수출하는 프로젝트로, 수력 발전을 주전원으로 사용해 세계 최저 수준의 탄소 배출 터미널을 지향하고 있으며, 원주민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주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2027년 착공, 2032년 첫 선적을 목표로 한다고 알려짐.

**Asyad Shipping LNG carrier arrives off India for demolition (TradeWinds)** <https://zrr.kr/6UayOs>

오만의 Asyad Shipping이 보유한 21년 된 LNG 운반선이 인도의 Alang 해체 작업장에 도착하면서 올해 전 세계 LNG선 해체 척수가 6척으로 늘어났다고 보도됨. 재활용을 위해 현금 매수자에게 매각된 해당 선박은 2001년 건조된 137,248cbm급 스팀터빈 추진선 Sohar LNG호로,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중동 걸프 해역을 빠져나온 최초의 LNG선이라고 전해짐. Asyad Shipping은 보유 중이던 5척의 스팀추진선 중 4척을 중고 시장에 매각했으나 가장 노후한 Sohar LNG호는 해체를 선택했으며, 환경 규제 강화와 신조선 인도 증가가 맞물리면서 향후 5년간 약 94척의 LNG선이 해체 처분될 전망이다이라고 알려짐.

**한화오션 조선소서 휴머노이드 로봇 실증... 에이로봇 엔닷라이트 협력 (조선비즈)** <https://zrr.kr/EYYdEY>

한화오션 주식회사 거제 조선소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고위험·비정형 조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피지컬 AI 기반 실증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도됨.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에이로봇과 3D AI 기술 기업 엔닷라이트가 참여해 엔비디아의 시뮬레이션 플랫폼과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하며, 실제 로봇 투입 전 가상 조선소 환경에서 사물 인식과 움직임 학습·검증할 계획이라고 전해짐. 에이로봇은 자체 휴머노이드 로봇 '앨리스'를 통해 고중량 물품 운반, 힘지 보행, 장애물 회피 등의 작업 가능성을 1년 이내에 검증할 예정이며, 한화오션 주식회사는 기존 자동화 설비로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까지 로봇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알려짐.

**'AI 용접 로봇개' 첫 현장 적용 HD현대중공업, 스마트 조선소 구축 가속 (더구루)** <https://zrr.kr/wkl2BH>

HD현대중공업의 울산 조선소에서 미국 Path Robotics의 4족 보행 기반 AI 용접 로봇 'Rove'의 첫 시연이 진행되었다고 전해짐. Rove는 피지컬 AI 기반 용접 모델을 로봇개에 결합한 이동형 자동화 시스템으로, 선박 블록처럼 이동이 어려운 초대형 구조물 현장에 직접 찾아가 작업할 수 있어 숙련공 부족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알려짐. 스마트 조선소 구축을 추진 중인 HD현대중공업과 제조업 특화 AI 기업인 Path Robotics의 이번 시연이 향후 현장 자동화 검증(PoC) 및 기술 협력으로 이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보도됨.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될 수 없습니다.